

■ **농림부 장관에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임명
정통 경제관료로 농정 경험도 많아...**
 ； **임상규 농림부장관 취임식**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새 농림부 장관에 임상규(任祥奎, 58)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8개 자리의 인사를 단행했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기획예산처 예산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의 주요 요직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경제부처 출신이다.

비교적 농림부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해 왔고, 농림부 직원과도 밀접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농정에 밝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장관은 경제기획원 생활물가과장, 물가정책과장 시절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국장,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농림사업의 투융자효과를 분석,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투융자재원확보를 앞장서 지원기도 했다.

특히 예산실장 재직시 참여정부의 농정근간인 개

방화에 대비한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119조원 투융자계획'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재임시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기술 개발분야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 농업, 농촌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주 개진기도 했다. 농림부 직원들은 임 장관의 내정 소식에 대체로 '무난한 인사' 라는 반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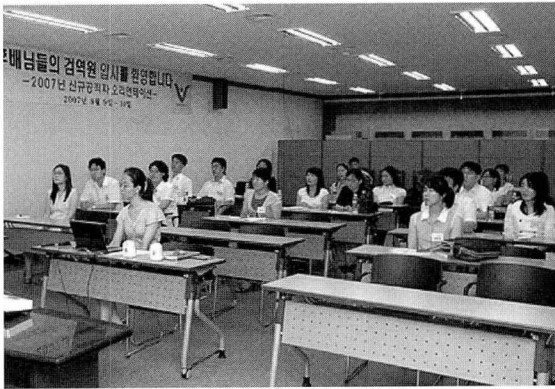
일부는 내부 승진이 무산되고 다시 외부 인사가 영입된 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지만 임 장관이 농업정책의 큰 틀과 관련 예산에 어둡지 않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임 장관이 그동안 농정에 애정을 갖고 여러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농림부 간부 직원들과의 유대 관계도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 장관은 지난 31일 취임식에서 농업인과 농림공직자가 서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하고, 참여정부 농정의 기초가 차기정부 이후에서도 일관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이용 및 보전제도도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 모습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7년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지난 8월 9일~10일, 2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신규 임용예정자 20명(수의직 16명, 수의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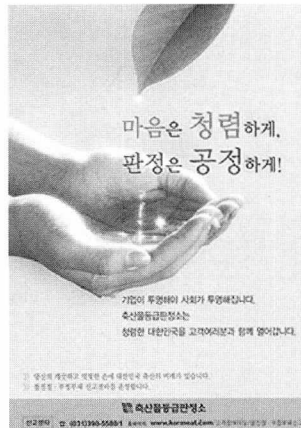


직 4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및 자질 함양, 신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실무 습득을 목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주업무 소개와 실험실 견학, 국경검역 현장 견학 등의 코스로 진행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의제기 제도 도입... 행정정보도 공개

앞으로 출하가축이 받은 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 이하 등판소)에서는 축산물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범위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등판소가 지난 23일 고객가치 경영을 위한 시스템 확립의 일환으로 등급판정결과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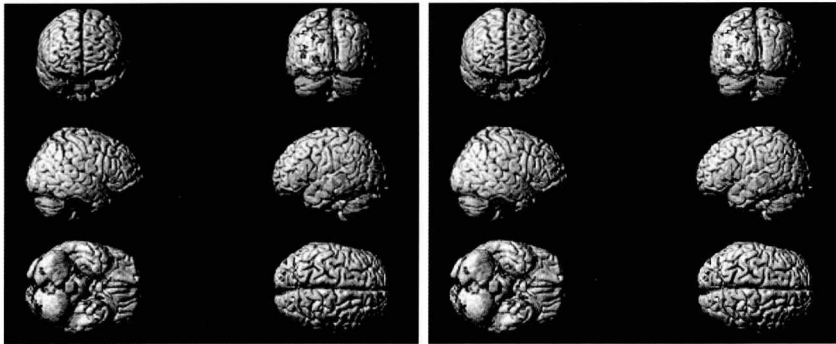


이는 고객들에게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요청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불친절신고센터(☎ 031-390-5580~1)를 운영해 고객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기관청렴도 향상과 더불어 고객만족 경영에 한 층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내용이다. 등판소는 아울러 윤리경영 이미지 포스터(사진)를 제작, 직원들로 하여금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고 창립 이래 부정부패 사건발생 '제로' 라는 명예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농진청, 기억·학습력 향상 천연물질 '피브로인 추출물 BF-7' 개발

농촌진흥청은 '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기억·학습력 및 집중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두뇌활성물질 '피브로인 추출물 BF-7'을 개발하였다. (BF: Brain Factor)



〈복용 전〉

〈복용 후〉

‘피브로인 추출물 BF-7’은 ‘기억·학습력 및 집중력 증진 효과’가 뚜렷해 학생, 수험생은 물론 뇌질 환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이고, 특히, 두뇌기능 활성화, 치매예방 등이 세계적으로 과학계의 핵심 연구테마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뤄진 발표여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은 천연잠상산물을 특수 가공법으로 분리 후 재가공한 물질이며,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의대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고, 식약청에서 ‘개별인정’을 받았다.

식약청(KFDA) 개별인정은 임상효과 등의 종합적 연구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그 효능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 대하여 ‘기억력 개선’ 효과를 갖는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를 총괄적으로 주도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김성수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기억·학습력 및 집중력 증진 효과가 인정된 획기적인 성과로서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100대 우수성과에 선정된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희연 교수가 주도한 다양한 임상실험에서는 학습력, 기억력, 집중력 개선효과가 20~30% 이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된 두뇌활성물질은 원료·효과 제품인정을 바탕으로 곧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장은 “FTA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한국농업이 생존과 번영을 누릴 길은 고부가가치 농업을 빠르게 육성하여 한국농업의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고, 고부가가치 농업 생명소재 개발과 선도모델 발굴 및 원천적인 권리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와 수출로 국익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